

전문가풀 회의결과 보고서

I. 개 요

1. 일시 : 2013. 10. 18. (16:00~18:00)

2. 장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층 회의실

3. 발표자 :

김민유 (Kotra, 전문위원)

정다희 (Kotra, 선임전문위원)

4. 참석자

장용준(경희대학교, 교수)

서정민(KIEP, 부연구위원)

이승래(KIEP, 부연구위원)

강준구(KIEP, 전문연구원)

김종덕(KIEP, 부연구위원)

4. 제 목

- 해외투자 유치 성공 및 실패 사례: 정보통신 IT 분야
- 해외투자 유치 성공 및 실패 사례: 의약 Bio 분야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Kotra 김민유 전문위원: 정보통신/IT 분야)

- 지난 40년간 IT 산업은 경제성장, 고용 창출, 무역수지 개선, 물가 하락 등 거시경제의 안정과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휴대폰, LCD 등을 필두로 하는 IT 제조업은 첨단제품 개발과 제조·생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1~3위 수준의 위상을 확보.
- 반도체 산업은 우리 나라의 주요 기간산업 중 하나로,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 북미와 중국의 소비둔화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 불안으로 인한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의 전년 대비 3.2%(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 축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11년 대비 약 0.6% 증가한 504 억불 규모의 수출실적을 기록
- 반도체 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장기불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2010-2011년 대폭 감소한 이후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11년 대비 약 9.8% 증가.
-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사들의 투자가 활기를 띄며 작년의 외국인투자유치 액수를 2008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였으며, 지난 몇 년간 생산량 감소로 재고가 소진 되어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추가 투자 및 스마트 기기의 폭발적 수요증대에 의한 전공정과 후공정 전반에 걸친 투자증대.
- 최근 한국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외국 기업들의 한국 내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
- 일례로 거의 모든 대륙(유럽, 중동, 아프리카, 미국 등)에서 반도체 시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스마트폰, 태블릿 PC, OLED TV의 세계 시장율이 높은 우리 나라 기업들의 선전이 예상되며, 중국 발 PC용 DRAM 수요증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수익구조 개선이 이루어진 국내 제조사들이 신규 공정 및 비메모리분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연결될 전망.

□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주로 국내 대기업들의 주력품인 LCD, 반도체 관련 부품소재를 취급. 대표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는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MEMC가 있으며, 이밖에 ASE, Amkor(이상 후공정 패키징), 페어차일드반도체, 매그나칩반도체 등이 있음. 최근 들어 휴대폰과 태블릿 PC의 공급 증대로 인한 글로벌 펌리스 업체들의 수요에 따라 후공정 및 테스트 장비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증대.

－ 일례로 웨이퍼 핸들러 장비 세계 1위기업인 Advantest가 천안신공장을 건설을 위해 43백만불을 신규로 투자했으며, 화학 소재분야 생산거점 설립 움직임도 나타나며 포토레지스트 제조부문에서는 티오케이첨단재료(日TOK-韓삼성물산)가 공장착공에 들어가고, 그라파이트 제조업체인 토요탄소코리아가 설립. 이와 더불어 반도체용 슬러리 제조분야에서는 Cabot社의 증액투자도 이어짐.

(Kotra 정다희 선임전문위원: 의약/Bio 분야)

□ 바이오 분야는 크게 녹색 바이오(green bio), 적색 바이오(red bio), 백색 바이오(white bio)로 구분되며, 상호간 연관관계가 높음.

－ 녹색 바이오 분야는 농업 및 식품업 중심이며 전체 바이오 산업의 약 36%(OECD 국가 기준)의 비중을 차지함.

－ 적색 바이오 분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약 분야로써 전체 바이오 산업의 약 25% 정도(OECD 국가 기준)의 비중을 차지함.

－ 백색 바이오 분야는 효소, 바이오 연료, 바이오 플라스틱 등의 산업 관련 분야로 전체 바이오 산업의 약 39% 정도(OECD 국가 기준)의 비중을 차지함.

□ 현재 한국에는 Kobio, Lee Gil Ya Cancer and Diabetes Institute,

삼성의료원, 삼성 SDS, Life technologies 등이 의약 바이오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중임.

□ 미국의 경우 신약개발에 약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장기간, 고위험, 고비용 사업임.

– 약 10,000 가지 의약 복합물질 중에서 임상전(preclinical) 단계까지 이르는 물질은 약 250가지 정도이고, 약 3~6년 정도의 기간이 걸림.

– 임상단계에 이르는 의약품은 약 5 가지 정도이며, 약 6~7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 안정성 승인을 받는데 까지는 추가적 최대 약 2 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제약분야는 핵심분야인 R&D에 있어서도 활발하게 아웃소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와 다름.

–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R&D 과정이 매우 길고 높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향후 전세계 의약 시장은 신흥지역 중심으로 크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됨 (IMS Health).

– 2015년까지 북미지역은 약 1.5%, 유럽지역은 약 5.3%, 호주는 약 3.9%, 일본은 약 3.3%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반해 2015년까지 중국 및 인도는 약 15.3%, 러시아 12.2%, 중남미 12.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의약분야는 기존 의약품의 특허 만료, R&D 관련 생산성 하락, 가격 경쟁심화, 규제강화, 각국의 의료개혁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여러 지역의 의료연구 기관이나 제약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제약사업의 대규모 다국적 기업화는 선진국간의 M&A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한국은 전세계 제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위 정도에 해당하며, 최근 임상실험 관련 시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제약관련 특허신청건수가 전세계 4위정도이며, 미국 특허 기준으로 바이오 분야 경쟁력은 세계 17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 FDI 유치 관련 세금감면, 부지지원, 현금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약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과는 GDP 대비 투자유치 잠재력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2) 토론 내용

- 이론적·학술적 측면이 아닌 실무적 측면에서 FTA 체결증가에 따른 IT나 Bio분야의 FDI 관련 우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음.
 - 이론적·학술적 측면에서 관세인하를 통한 상품무역 장벽의 완화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됨.
 - FTA를 통한 무역장벽의 완화는 완제품의 수출입만을 고려하였을 때, FDI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에 주의를 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FTA의 체결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제기.
 - 중간재 교역을 고려하더라도, 중간제품 하나 혹은 상품 하나만을 고려한 경우 FTA를 통한 상품관세 인하는 FDI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논의.
 - 하지만,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전체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고려한 경우, 단일 중간재 혹은 완제품만을 고려한 것과 달리 FTA 체결이 FDI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아울러, 현재와 같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른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확대에 따라 FTA 체결이 FDI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실무적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는 국내 산업의 발달 정도와 국내 선도(anchor)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IT분야와 Bio 분야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핵심 국내 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한 국내 산업 수준의 향상이 외국인 해외직접투자를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 이러한 핵심

국내기업이 반드시 대기업일 필요는 없다는 점 또한 강조됨.

-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중간재 교역이 크게 증가하였는 바, 대규모 수요처로써의 다국적 기업과 수준 높은 관련 산업 발달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을 주게 됨.
 - 특별히, Bio 의약분야는 분야 특성상 산업의 발달정도가 높을수록 단순한 복제(generic) 약품 제조 위주인 greenfield 형 FDI보다는 R&D 혹은 임상실험 등을 위한 M&A 형 FDI나 합작투자가 월등히 많으므로,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에 수립에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
 - 또한, M&A 형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가 선진화/고도화 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니,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 위기를 통해 외국 자본이 유치된 경험이 있어 국내적으로 M&A에 대한 국민 감정이 좋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하다는 약점이 있다는 점 강조.
-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측면에 있어 한국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은 초기 투자금액에 대한 지원 위주로 장기간에 걸친 R&D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은 크게 조세감면, 부지지원, 현금 지원으로 나뉘며, 이들 모두 대규모 초기 투자 금액을 전제로 한 사후적 지원이거나 정부에서 지정한 고도기술 관련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음.
 -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R&D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
 - 아울러, 이러한 R&D 활동의 증가는 초기 자본 유입이 많지 않으며 장기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부지 공급 위주

의 대규모 자본 유입 중심의 정책은 개선되어야 함.

-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인적 자본 축적 및 고용을 증대 시키는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